

한가위 특집



▲로스트 페인팅=미국 작가 조너선 할의 장편 소설로 2005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지중해 오디세이=분쟁지역을 전문적으로 취재한 미국의 저널리스트 로버트 카플란의 지중해 여행기.

▲먼지=과학·자연사 전문가가 하나 홀스가 먼지를 주제로 삼아 쓴 과학교양서.

▲인도신화기행=곡성 출신 시인 차창룡씨의 기행서. 유령처럼 일고 있는 인도여행에 삶을 불일 수 있도록 신화를 통해 인도의 문화와 예술을 접근한다.

▲영화 속의 국제정치=국제관계 전문가 로버트 W. 그레그가 영화에 등장한 국제정치를 설명했다.

▲광인=중국인 소설가 허 진이 '천안문 사태'를 배경으로 쓴 장편소설. 미처버린 한 대학교수와 그를 간호하는 지식인의 이야기.

▲남자, 여자를 해석하다=캘리포니아 주립대 심리학 교수인 허브 골드버그의 '관계와 사랑에 관한' 심리교양서.

▲이마트 100호점의 숨겨진 비밀=지나해 세계적 유통기업 윌마트코리아를 인수한 이마트의 성공비결을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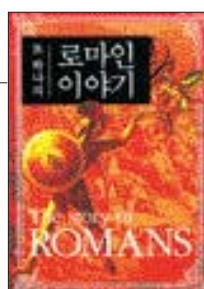
▲나의 꿈, 유럽미술관에 가다=젊은 미술사학도 허은경씨의 유럽 미술관과 문화 이야기.



'개혁' 키워드로 다시 읽는 로마사

또 하나의 로마인 이야기 시오노 나나미 지음

"이제 더 이상 쓸 기회가 없으니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지난 1992년부터 15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1년에 한 권씩 책을 출간, 지난해 말 15권으로 완간한 '로마인 이야기'의 작가 시오노 나나미(70)가 "왜 15권은 다른 책들에 비해 두껍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말이다.



임을 맡기는 일이었다. 두 번째는 기원전 390년 '켈트족의 습격' 이후 공화정 체제 내부의 개혁이다. 정부의 요직을 평민에게 개방함으로써 귀족 대 평민의 대립구조를 깨고자 했던 것이다.

꽃밭 최인호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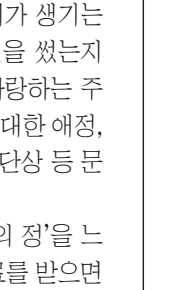
환갑을 넘긴 후 더 많은 소설을 쏟아내며 왕성한 필력을 자랑하는 소설가 최인호가 10년만에 산문집 '꽃밭'을 펴냈다. 육십 넘게 살아왔으면서도 '매일 아침 내가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고 고백한 저자는 다양한 에피소드가 담긴 50여편의 글을 통해 인생을 사는 지혜를 들려준다.



아내의 다리는 왜 이렇게 연약해졌나

연약해진 그녀의 다리를 느끼며 마음 아팠던 사연. 결혼 30년 동안 단 한번도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지 못했던 아내와 어느 날 부둥켜 안고 노래 부른 사연 등 따뜻한 글들이 담겨 있다.

▲점자는 숲속의 달님=잡구려기 달님이 자른 친구를 돕기 위해 하는 따뜻한 이야기



요정의 이야기가 예쁜 그림과 함께 펼쳐진다. (미라 M&B·9천원)

Real estate advertisements for various properties in Gwangju, including '대인동삼일부동산', '무등공인중개사', '정우부동산', '첨단월계공인중개사', '금보부동산컨설팅', '한일지도판매(주)', and '현대공인중개사'.